

■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김진건 소장

늦어진 개학으로 인해 준비해야 계획들이 조금씩 차질이 생기고, 마음은 급한데 어디서부터 어떤 일들을 챙겨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많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은 시작되었지만, 지금 입시가 수업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온라인 수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 학생들이 챙겨야 할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크할 것은 체크하고 나머지 오프라인 개학 후에 실시해야 할 사항들은, 지금 준비를 철저히 했다가 실제 오프라인 개학이 되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결국 ‘정리’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체계적이고 매력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부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지요. 수행했던 활동들을 정리하여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처럼 개학이 늦어지고 1학기 과정이 짧아진 경우에는 학생부에 담을 내용들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제 적용해보는 로드맵을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틈틈이 실제 오프라인 개학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체크할지 정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월부터 1학기 끝날 때까지 학교생활 중에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나 수행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여 오프라인 개학이 되었을 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수행하고, 수행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담임선생님과 교과목 선생님께 자신을 내세울 사항이 있으면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께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비교과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뿐 만 아니라 비교과 등 학생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건학 이념과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므로 대학에서 원하는 요소들에 맞게 자신의 개별특성, 구체성이 드러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기간은, 온라인 수업 듣는 시간 외 모든 시간을 자신의 주관 하에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므로 월 계획, 주 계획, 일 계획 등을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작성하여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진로희망 및 사유 점검

학생부종합전형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고, 고민한 흔적을 학생

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전형 도입의 취지이므로, 지금은 자신의 진로희망, 진로희망 사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설명회 때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전공적합성’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고3의 경우 학생부 항목 중에서 자신의 진로희망과 사유 항목이 따로 분류되어 있고, 그 항목이 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주므로 당연히 잘 정리하여야 하고, 고2, 고1의 경우도 진로희망, 사유 항목은 없어졌지만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고 전년도에 설정했던 진로에 변화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고3의 경우, 될 수 있으면 1,2학년 때 진로희망으로 작성했던 진로를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학년 때 작성했던 진로희망과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 진로가 바뀌었다면 진로희망 사유를 통해서 진로희망이 변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를 추가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학년 때 막연하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을 기재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도 구체적인 진로희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3학년 진로희망은 1,2학년 때 작성해놓았던 진로를 구체화 하는 선에서 진로희망을 작성하고 그 진로희망에 맞게 구체적인 활동들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2의 경우, 학생부 항목에서는 진로희망사항과 사유 항목이 없어졌지만, 대신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항목에 진로희망과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으므로 (물론 기재된 진로희망은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1학년이 끝난 시점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진로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1학년 때 작성하고 활동했던 진로희망과 달라졌다면 달라진 진로에 맞게 독서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해서 바뀐 진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로가 명확한 학생도 있지만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1학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은 우선 1학년에 기재된 진로를 바탕으로 2학년 때에도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기준으로 1학년 때 설정한 진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게 독서활동, 진로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1의 경우, 오프라인 개학 후에 담임선생님께서 자신의 진로희망과 사유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할 때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자신이 나중에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미래 비전이 없다면 지금부터 직업에 대한 탐색, 체험을 하여 어느 정도 윤곽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로희망과 사유는 담임선생님께 보여지는 자신의 첫 인상이므로 담임선생님께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진로희망을 설정한 동기나 이유, 준비와 노력 과정, 그리고 그 진로를 선택했을 때의 장래 포부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진로희망은 향후 동아리 선정이나 독서활동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진로희망사항과 사유를 기재하고 실제 학교별 동아리 활동 사항들을 확인하여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2) 창의적체험활동, 세특 준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록의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나 아니면 열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했던 부분을 학생부에 의미 있고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이어리에 학교생활 동안 있었던 중요한 사항이나, 수업 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항들을 메모 형식으로라도 작성해 두었다가 나중에 각 활동과 교과목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의 미래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학교생활을 어떻게, 얼마나 충실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그려보고, 그 내용을 학생부를 통해 기록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활동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했던 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으면 의미가 작아집니다. 지금부터 각 활동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서 학년이 끝나는 즈음에, 학년말 기말고사가 끝나는 즈음에는, 자신이 지난 1년 동안 했던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활동, 학교에서 제시한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내용을 담임선생님, 교과 선생님께 어필해서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중시 여기는 전공적합성, 학교생활충실성, 학업역량이 드러나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부를 통해 잘 관리할 수 있게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고2,3의 경우 1학년 혹은 1,2학년 학생부 기재 내용 중 창의적체험활동, 즉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점검해보고 개별특성, 구체성이 드러났는지에 대한 복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개별특성,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인 학교 활동, 일반적인 학급 활동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3학년 활동에는 반드시 자신의 개별특성, 구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한 다이어리를 중심으로, 나중에 정리하여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께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개별특성, 구체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언급하거나 후속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업과 관련하여 다이어리에 기록할 내용 중에서 과목별로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항들, 즉 수행평가나, 발표, 질문했던 내용, 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내용, 그 과목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 단점을 극복한 노력, 기타 교과목 선생님께 어필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과목별로 정리하여 기회가 되면 교과 과목 선생님께 어필하여 학생부에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옆두에 두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지요.

고1의 경우 학생부를 접하는게 처음이고, 실제 학생부에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지 모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창의적체험활동 각 항목별로 선생님께서 어떤 주제로 학생부에 채워주실지, 1년 선행의 학생부를 참고해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진로를 언급하거나 후속활동을 추가해서 자신의 개별특성, 구체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정신이 없겠지만 언니, 오빠, 형, 주위에 선배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중학교 학생부를 확인해서 항목들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1,2학년은 개정된 학생부 관리 규정에 따라서 학생부 기재 내용과 분량이 전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도 개정된 학생부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지만 창의적체험활동과 행동특성종합의견 기재 분량은 바뀌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자율활동은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은 진로희망사항 포함 1,000자에서 700자로, 행동특성종합의견은 1,000자에서 500자로 바뀌었고 동아리활동은 500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3) 후속활동 연계 및 정리

최근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학교활동은 단편적인 활동으로 끝나는 활동보다는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요시합니다. 후속 연계활동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창의적체험활동 란에 학급에서 혹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활동 정도만 기재될 수 있으므로, 교과과정 상 학교 혹은 학급에서 주관하는 활동을 통해서 개인 각자가 배우고 느낀 점이 있을 때 그 배우고 느낀점을 구체화하는 후속활동과 연계하여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과목별 수업 중에 있었던 세부능력특이사항을 적는 항목에 있어서도 각 개인이 수행평가나, 발표 등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해 호기심을 확장하는 후속활동의 유무, 혹은 후속활동의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혹은 학급에서 년간으로 계획된 행사나 프로그램에 자신이 참여했을 때, 참여하면서 배우고 느낀점을 다이어리에 기록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참여한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한 후속활동을 찾아서 실행하고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신의 노력들이 결국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과 공유를 통해서 결과물로 나올 것이기에 평소 담임선생님과 각 교과선생님과의 유대 관계도 중요할 듯 합니다. 그 시작은 수업 열심히 듣기, 기본적인 예절, 경청, 메모 등 기본적인 부분이었지요.

나중에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중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활동의 중요성이 큼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개별특성, 구체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로희망사항에 기반한 구체적 진로 활동이었지요. 또한 교과별 수업 중에 자신이 호기심을 느끼는 부분이나 수행평가 중에서 궁금한 사항, 발표 준비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과 연계하여 후속활동을 찾아보고 그러한 후속활동 결과를 다이어리에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된 내용들을 나중에 교과목별로 정리하여 교과목 선생님께 어필해서 학생부에 반영될 수 있다면 풍성하고 더 매력적인 학생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교과목 선생님, 담임선생님께 독서 추천 요청

독서활동의 경우 지금은 독서활동 란에 제목과 저자만 기재 가능합니다. 최근에 독서활동 란에 기재되는 내용이 바뀐 이후에는 단순한 질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독서, 후속활동으로 연계된 독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학생부 독서활동 란에 제목, 저자, 주요 내용, 소감 등 1권당 2~4줄 정도 작성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목과 저자 밖에 기재하지 못하므로 독서를 했더라도, 어차피 독서를 해야한다면, 학생부 각 항목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교과와 연계된 후속활동의 독서가 필요합니다. 독서활동 란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등 각 교과목 별로 기재할 수 있는 란과 각 교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자신의 진로나 자기계발서 같은 책을 기재할 수 있는 공통 란이 있습니다. 각 개별 교과목 독서 담당자는 각 교과목선생님, 공통 독서란 담당은 담임선생님이 됩니다.

공통 독서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책을 학생부에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통 독서의 경우 담임선생님 소관이므로 담임 선생님께 추천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각 개별 교과목 독서의 경우도 각 교과목 선생님을 찾아 뵙고 교과목 선생님께 책을 추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목 선생님을 찾아 뵙고 책을 추천 받으면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선생님께서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추천된 책의 내용과 소감 등을 기재해 주시기도 하므로 어차피 과목별 독서를 해야 한다면 교과 선생님께 추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 교과목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는 창이 있으므로, 이 질문 창을 통해서 교과목선생님께 책을 추천 받아서 독서활동을 한 후 독서활동 란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2,3의 경우 1,2학년 때 했던 독서의 심화, 교과 수업과 연계된 독서가 필요할 것이고, 1학년의 경우, 진로가 명확한 학생이라면 진로에 관한 책 3~4권 정도가 1학년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은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지기 전까지는 고전 위주로, 융합 독서 위주로 독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3의 경우 자기소개서 항목별 내용을 확인해보고, 특히 1번 항목의 후속활동에 쓸 내용이 없는 학생은 독서를 통해 내용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의적체험활동이나 세부능력특기사항의 활동과 연계되는 후속활동으로 독서를 선택하여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봉사활동 체크

봉사활동은 교내활동과 교외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독서활동과 함께 지속성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독서와 마찬가지로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교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봉사를 안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봉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3학년 학생의 경우 지금까지 했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1학년의 경우, 개학이 늦어짐으로 해서 봉사활동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겠지만, 오프라인 개학 후 어떤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멘토링 활동이나 다문화 교육 봉사 등의 교과와 관련 봉사활동이나, 양로원, 요양원, 병원 봉사 등 의사, 간호사와 관련된 봉사의 경우, 봉사 활동 찾기가 어렵지 않고 그러한 경험들이 실제로 필요하므로 진로와 관련된 봉사 활동이 필요하지만, 그 외 진로와 관련된 특별한 봉사를 찾기 힘들거나,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진로의 경우 굳이 봉사 활동을 진로와 연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배우거나 느끼는 부분이 있는 요양원, 양로원, 고아원 봉사 활동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 자기소개서 1번 항목 확인

고3의 경우, 자기소개서 2,3,4번 항목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므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작성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만, 1번 문항은 고1,2,3학년 연계 혹은 후속 활동을 심화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1번 항목은 지금쯤 꼭 한번 읽어보고 1,2학년 활동과 연계하여 3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미리 내용들을 정리한 후 활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번 항목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예습하고, 복습하고, 오답노트 만들어서 공부했다, 이렇게 접근하면 그냥 평범한 자기소개서가 되어 입학사정관과 교수님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바로 뒤쪽으로 밀쳐지게 됩니다.

1번 항목의 핵심 키워드는 ‘지적호기심’입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 학습 경험 중에서 ‘지적호기심’이 보여지는 ‘창의적’, ‘독특한’ 경험과 노력, 그것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후속 활동과 연계되어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지금쯤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1번 문항은 국어, 영어, 수학, 물리, 사회문화 등 특정 과목의 특정 단원을 공부하고, 혹은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듣고, 혹은 자신이 과제 발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알고 싶은 욕구(지적호기심)가 생겨서 후속 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탐색을 했다거나, 보고서를 썼다거나, 발표를 했다거나, 책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거나 하는 등등, 그리고 지적호기심을 느끼게 된 처음 활동에 이은 후속활동을 통해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거나, 관련된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팀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멘토링활동을 했다든지 등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다시 말하면 그러한 활동 결과로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등,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혹은 이러한 연계 활동 결과가 자신의 진로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를 써보고 쓴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학년 1학기가 끝난 후 결과물을 가지고 연계하려고 하면 쉽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1,2학년 과정에서 호기심을 바탕으로 수행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3학년에 심화 후속활동들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1,2,3학년 혹은 2,3학년 전체적인 로드맵을 먼저 그려본다면 1번 항목을 작성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깊이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3학년의 경우 1번 항목 뿐 만 아니라 1,2,3번 항목 모두 초안을 미리 작성해보는 것이 더 좋겠지요. 1,2학년의 경우도 자소서 항목 정도는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명회 할 때마다 자기소개서 항목 중 1번 항목은 1,2학년으로 하여금 반드시 한번 정도 읽어보도록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1학년은 2,3학년과 연계하여 준비하고, 2학년은 3학년 활동과 연계하여 1번 항목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 계획표 작성 및 실천

계획표 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이어리를 작성하라는 것도 사실은 자신이 했던 활동을 기록하는 의미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고3이 되면 누적된 학습으로 인해서 슬럼프도 오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친구들의 유혹도 있는 등 여기저기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들이 많게 됩니다. 또한 빨리 고3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해야 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공부,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 계획, 주 계획, 일 계획, 시간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학습만이 고3의 스트레스, 슬럼프, 친구들의 유혹, 학습의 편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학년 때부터 계획표에 따른 실천이라는 연습을 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3학년 때 비로소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 없이 목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오프라인 개학이 늦어지고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계획에 따른 학습 과정을 실천하지 않으면 학습에 대한 리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학습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자신을 통제하면서 학습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월 계획, 주 계획, 일 계획, 시간 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을 부모님과 공유하여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고 다른 활동을 하기 힘든 시간이므로 온라인 수업 외 모든 시간을 자신의 계획 하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1학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학 입시의 최종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으므로 더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획표는 월 계획, 주 계획, 일 계획, 시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디서 누구와 함께 계획표를 실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도서관, 학원 교실, 독서실, 카페, 집 등 다양한 장소가 있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을 통제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약간의 통제가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관리해주는 학교 도서관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오프라인 개학이 미뤄지는 시점이므로 등교하여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부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므로 어디서 공부할 것인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작성된 계획표, 시간표는 반드시 부모님, 선생님과 공유하여 최소한의 크로스 체크는 할 수 있도록 미리 열린 대화를 통해 계획표를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 부모님과 대화 습관 기르기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은 물론 비교과 성적, 비교과를 바탕으로 쓰여지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까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다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교내 시험 공부와 수능 공부 때문에 작은 부분까지 다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부모님께서 어느 정도의 관심과 체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개학이 미뤄진 지금, 온라인 수업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 학생 개인의 자율적인 학습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는 더욱 더 학생과 부모님의 대화를 통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준비하는 비교과 영역의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면접 준비의 경우, 시사 이슈를 바탕으로 반드시 일상 속에서 학부모님과 학생이 대화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기에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오프라인 개학이 되더라도 계속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학부모님과 학생이 사회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습 과정, 학생부 정리 과정인 다이어리를 확인하면서 상호 보완 체크해보기도 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과 학생이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 놓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